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理念과 병자의 날

(2001. 2. 7 강남성모병원 대강당)

김 수 환 추기경

## I. 인사말

오늘 여러분에게 “가톨릭중앙의료원의 理念”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뵈옵게 되어서 기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평소에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는 2월11일이 제9차 세계 병자의 날이고 오늘 이 특강도 “병자의 날”을 기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1993년 現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Lourdes의 성모 발현 축일인 2월 11일을 “병자의 날”로 지정하시어 올해가 아홉번째입니다. 올해는 호주 시드니 대성당에서 세계대회 미사가 교황님 집전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자의 날”은 병고에 신음하는 이들의 치료와 간병의 혜택이 모든 인간, 모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병자들에 대한 관심, 사랑, 자비, 병고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 믿음과의 관계에서 병고를 볼 줄 알며 인간 생명의 존중, 生命의 文化, 사랑의 文化가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신사년 뱀띠 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뱀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한국군 군의관들의 병과 표시는 뱀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군의관 표시를 그대로 본 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구약 민수기의 구리뱀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百姓이 사막을 건널 때 굶주림과 목마름이 심하여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어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 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만나?)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6절 :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고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않으리라.”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았고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 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

신 자신을 이 뱀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구리뱀이 나무에 높이 매달렸듯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을 예고하시고 동시에 민수기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죽지 않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치유자이십니다.)

## II. 가톨릭 중앙의료원 理念

여러분은 “가톨릭중앙의료원 理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理念”이란 책자도 나와 있고 病院 요소 요소에 액자로 걸려있으니 자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더러 여기에 대한 말씀, 또는 講話도 들으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늘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치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말씀은 더 할 수 없이 지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 신자되고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 그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 理念의 核心

사실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중앙의료원 理念” 말씀의 핵심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모든 痛苦에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醫療 봉사를 통해서 현실에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患者들을 대할 때 - 患者를 診察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며 또 환자를 위해 投藥하고 간병하는 등 患者를 위한 모든 醫療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늘 그것이 단순히 醫師로서 看護師로서 藥師로서 만이 아니고(즉 專門 醫療 技術人으로서 만이 아니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患者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病을 治療하고 그의 生命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톨릭 중앙의료원 理念”의 核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은 病者를 대할 때 단순히 醫師, 看護師, 藥師 기타 專門 技術者로만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 III. 치유자이신 예수

우리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신약성경 선교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특히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오 복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복음 여러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태오복음 11장 5절의 말씀대로 “소경은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참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누구든 육체적 정신적 병고에서 치유되고 모든 근심 걱정과 고뇌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은 빛속에 살게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은 새롭고 참된 삶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 치유의 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神의能力입니다. 그러나 그 神의能力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超人的 神通力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전적인 사랑,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과 고통을 함께 하고 그 병고까지 당신이 받아들이시는 전적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즉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Compassion, 그와 아픔을 함께 하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마태오 8. 17).

예수님은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병고를 당신도 함께 지고 가시고 함께 앓으셨다고 할만큼 병자들과 당신을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독일 복음교회 신학자 Moltmann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박해 당하시고 고독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극도로 괴로워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죽음에 임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형제이며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들이 받은 모든 고통과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되시고 형제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사도들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앓은병이를 일으키고(사도 3, 6-7참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사도 9, 36-42)등 많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사도 4, 15).

### Ⅳ. 罪人の 회개 : 全人的 치유

이 예수님과 만나면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단지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이 치유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 全人的 치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면 극악무도한 人間도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다시피 완전히 새 사람

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교도소(서울구치소)에서 이런 것을 참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살인강도죄로 死刑囚가 된 사람이 누군가의 권고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게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자신 같은 罪人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바로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으며 그 외아들은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하느님의 사랑에 접하였을 때 회개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년 여름 서울 구치소에서 6명의 사형수와 함께 미사를 드렸을 때 이야기. 최월갑의 死刑집행 때의 모습)

참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느님의 介入없이 人間의 힘만으로는 罪人의 회개같은 마음 변화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요, 완전한 치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정신적 육체적 병고에서 근원적으로 고쳐주시는 全人的 치유자이십니다.

## V. 그리스도 되어라!

“가톨릭중앙의료원 理念”에서 말하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복음에서 말하고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再現해야한다는 것이 이념의 근본취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要求입니다. 너무나 큰 理想,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한 理想을 要求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라” 이것

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분은 더 할 것이고 신자도 큰 차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모든 人間을 고쳐줄 수도 없고 나는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러니 理念이 要求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다”

사실 언제나 理想과 現實사이에는 乖離가 큼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理想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理想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또 그 理想을 추구하는데 겪는 시련과 고통이 크다 하여도 이를 이겨내면서 理想을 向하여 邁進해 갈 때에 비로소 人間은 날로 더욱 成熟하여지고 內面化되고 더욱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끼고 追求하는 幸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理想을 向 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데서 人間社會 또는 人類의 進歩가 있고 發展이 있습니다.

뿐만더러 의사나 간호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라는 天職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숙히 약속하신 Hyprocates선서, 나이팅겔 선서가 이를 잘 말합니다. Hyprocates선서에서 여러분은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노라” 하시며 특히 人間生命을 잉태된 순간부터 至上의 것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간호사 역시 “나는 一生을 義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또한 “간호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生涯를 인류 봉사를 위해 바치고 의롭게 살고 환자의 生命을 존엄한 人間의 生命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生命이 병들었을 때 치료와 간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醫術을 우리말에서 仁術이라고 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仁’ 어질인字 ‘仁’은 유교에 있어서 人道의 극치요, 最高의 德입니다. 仁義禮智信, 孔子님은 늘 堯, 舜을 가장 理想的인 德治의 君主로 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堯, 舜도 ‘仁’에 이르지 못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仁’은 이처럼 모든 德의 完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큰 德, 德의 完成은 사랑입니다. ‘仁’은 이 사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仁’을 붙여서 醫術을 仁術이라고 옛날부터-그리스도와 관계없이-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醫師와 간호인은 仁術을 배푸는 醫療人이어야 하는데는 變함이 없습니다.(東醫寶鑑: 허준은 그리스도교를 모르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었으나 그는 과거를 보러가던 도중 자신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과거를 포기하고 먼저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立身出世보다도 환자의 병치료를 더 중하게 여긴 허준, 그는 참으로 仁術을 배푸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偉大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장기려 박사일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슈바이처 박사일 것입니다. 두 분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에게 베풀고져 헌신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의료원 理念이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理致에 어긋나는 것도,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것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힘들뿐만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참으로 따르기 쉽지 않는 것임을 저 自身부터 잘 압니다.

## Ⅶ.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를 닮아야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人間 모두에게 바로 그리스도 당신 친히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물론이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게 배워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뿐더러 하느님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자 되라”(마태오 6, 46). 또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루가 6, 36)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하느님과 같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편 不可能한 要求와 같이 느껴지면서도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人間은 결코 한 생을 살다 죽고 썩고 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있습니다(로마 8, 17참조). 한마디로 人間은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存在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未來는 참으로 偉大하고 遠大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人間을 이렇게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존엄한 人間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되고, 하느님의 상속자되어 영원한 生命을 얻어 구원되기 위해서입니다.

## Ⅶ. 人生의 意味

여기에 人生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人間은 現世만을 위해서 있지 않고 永遠한 生命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患者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患者를 살리지 못하는 限界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自身の 無力感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盡人事待天命하는 자세가 必要합니다. 뿐더러 人間은 永遠을 위해서 있다는 이 眞理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의미와 함께 人生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오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입니다. 영원의 見地에서 人生을 보면 죽음은 어떤 의미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永遠한 生命을 누리게 하는 完全한 치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醫師는 물론 患者를 살리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음의 눈, 즉 영원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호스피스 봉사 활동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 Ⅷ.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Mother Teresa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不可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는 그런 사랑을 동경합니다. 현실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사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사람을 현실에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例를 들면 Mother Teresa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실 때 이미 온 世界 모든 이가 산 聖人이라고 칭송했습니다.

25년 전인가 우리 나라에 처음 訪問하셨을 때 제가 모셨는데 新聞들은 “산 聖女 데레사 수녀님 韓國에 오시다”고 大書特筆 하였고 도착하신 空港에서부터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고 雲集하였고 이분의 옷차림만이라도 만져 보려고 애썼습니다. 보통 사람들만이 아니었고 記者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벨 平和賞을 받으셨을 때 온 세상이 이를 당연시하며 크게 축하드렸고 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온 人類 世界가 ‘聖女 데레사 가시다’ 하며 애도했습니다.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生存時 이미 산 聖女로 종교나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숭앙 받게 된 것은 그분 자신의 말씀과 삶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께서 사신 그 사랑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 버림받은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높고, 거룩한 理想이기에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일같이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사랑을 現實에 사는 이에게는 깊은 경의와 함께 동경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려박사, 슈바이처박사)

“나는 아니지만, 많은 데레사 수녀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수녀님에게 “당신은 聖人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수녀님은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는 동시에 기자 자신을 가리키며 “당신도 聖人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人間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서 聖人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사람, 聖人, 의사 간호사로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레사 수녀님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된 동기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단순합니다. Albania 출신인 테레사 수녀님은 처음에는 Loretto 수녀회의 수녀였습니다. 인도에 파견되어 거기서 학교 선생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여기 있는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과연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며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이 생각을 떠날 수 없었고 몇 해 후에 1946년 어느 날 밤차를 타고 Darjeeling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데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자신을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가슴깊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제2의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교황청의 허가를

얻어서 Loretto 수녀회를 떠나서 가난한 이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를 회상하면서 “Loretto 수녀원을 떠나는 것은 내가 처음 수녀가 되기 위해 고향 집을 떠날 때보다도 더 괴로웠다”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까지 살던 정든 곳을 떠났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갔을 때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회를 설립한다든지, 어떤 병원이나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없었고 그녀 수중에는 잔돈 몇푼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돌보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제자 학생들이 그녀 곁으로 와서 함께 일도 왔습니다. 이들이 후에 “사랑의 선교 수녀회”의 첫 회원이 된 것입니다.

## Ⅷ.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테레사 수녀님은 복음을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녀라고 불리우는 명성을 얻겠다든지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직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결심 및 결행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쓰신 책「작은 몸짓으로 사랑을」(原文 Title : No Greater Love)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가지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사랑 받고 있는지, 즉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는 말해도 싫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식은 사실 그녀의 삶의 원천이요, 활동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근사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기쁨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오로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1-39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참으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하면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극악 무도한 살인강도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를 확고히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반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장, 15장)

데레사 수녀님도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막는 이기심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사랑의 한계인 십자가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우리와 예수님의 일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 結 論

결론적으로 人間에게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병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병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